

공동서신의 이해

보편적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권면

과목명: 공동서신

담당교수: 김문경



초대교회

배경 이해:

초대교회 상황과
저자들의 신앙 여정 파악.

본문 탐구:

초대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사도들의 권면 분석.

주제 적용:

믿음·인내·거룩·진리의
핵심 주제를 여성 지도자의
삶과 사역에 적용.

삶의 실천: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형성.



오늘의 현실

공동서신의 범위: 바울서신 이외의 7권

바울서신
(13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별도로 취급되거나 종종 포함됨. 그리스어로 말하는 동방교회에서는 3세기 말까지 이 7권의 범위가 고정됨.

명칭의 의미: Katholikos (καθολικός)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유효한", "전체와 관련되는" (Universal/Catholic)



특정 개별 교회 공동체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전체 교회'를
향해 선포된 보편적 진리와 권면. (참조: Ign. Smyrn. 8,2)

‘공동서신’ 명칭의 역사적 형성 과정



~200년

아폴로니우스 / 테미손:
이단 논쟁 중 요한일서가
최초로 ‘공동서신’이라 불림.



250년경

디오니시우스:
요한일서가 지닌 ‘보편성’을
명확히 강조.



3세기

오리게네스 / 유세비우스:
요한일서와 베드로전서를
‘인정받는 문서’로,
나머지를 ‘논란되는 문서’로
구별하기 시작.



367년

아타나시우스: 7권의
완전한 정경화 완료. ‘7’이라
라는 숫자가 전 세계 교회의
전체성(완전함)을 대변함
(무라토리안 단편).

정경화 과정과 성경 배열 순서 비교

동방교회

서방교회

루터역 (우리말 성서 기준)

사복음서 / 사도행전

사복음서 / 사도행전

사복음서 / 사도행전

공동서신
(약, 벧전·후, 요일·이·삼,
유다서)

바울서신
(롬~몬, 히)

바울서신
(롬~몬)

바울서신
(롬~몬, 히)

공동서신
(벧전·후, 약, 요일·이·삼,
유다서)

공동서신
(벧전·후, 요일·이·삼)
+ [히, 약, 유다서]

배열 순서에 담긴 신학적 논리

동방교회



"초대교회의 세 기둥"

- 갈라디아서 2:9의 언급
순서(야고보→게바→요한)를
따라 야고보서를 맨 앞에 배치.
저자의 권위 중시.

서방교회



"베드로의 수위권"

- 서신의 중요성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고려하여 베드로 서신을
첫머리에 배치.
바울서신 뒤에 위치.

루터의 번역



"정경비평(Kanonkritik)"

- 루터의 신학적 기준(이신칭의)에
에 따라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히브리서와 함께 성경의
뒷부분(계시록 앞)으로 재배열.

수신자의 스펙트럼: 실제 편지는 누구를 향했는가?

특정 지역/개인
(Specific)

보편적/일반적 독자
(Universal)



- 베드로전서: 본도, 갈라디아 등 소아시아의 특정 흠어진 나그네들.
- 요한2·3서: 택하심을 받은 특정 부녀, 사랑하는 가이오.

- 야고보서: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
- 베드로후서 / 유다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모든 자들.
- 요한1서: 요한 공동체 전체 (수신자 미상).

각 서신의 핵심 메시지와 영적 진단



야고보서

기독교인의 행위에 대한 강조.
이론적 신앙을 넘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베드로전·후서

임박한 구원의 중요성.
외부의 핍박에 맞선 인내와,
내부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



요한서신

가현적 영지주의 이단 경계.
진리 안에서의 환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실천.



유다서

세상의 유혹에 대한 경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치열한 영적 책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약 1:1)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 고난과 흠어짐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흠어진 나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벧전 1:1-2)

고난 중에서 지키는 정체성과 거룩.
외부의 핍박이라는 폭풍과
내부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암초 사이에서
성도는 진리의 확신으로 닻을 내려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요일 1:1)

진리와 사랑, 그리고 수호.
영지주의 이단 앞에서는 단호한 경계를,
공동체 내부에서는 참된 진리에 기반한 사랑과 환대를,
그리고 물려받은 믿음을 향한 영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Synthesis: 보편적 서신, 교회의 영적 면역력

바울서신 = '처방전'
(Prescription)



특정 교회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답. 저자와 수신자 간의 생생한
대화와 상황 지식 요구.

공동서신 = '면역력' (Immune System)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직면하는 본질적 위기(박해, 이단, 윤리적 타락)를
견뎌내기 위한 보편적 원리.

거짓과 고난이 교차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행함과 진리’로 응답할 것인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치열한 위기 속에서 선포된 보편적 권면은
오늘날 여성 지도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역의 자리,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할 성숙한 신앙의 이정표가 됩니다.

공동서신의 이해를 마치며

Next Week: 제2강 야고보서 >>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 —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섭니다.

1주차 강의 종료